

이삭줍기

재혼한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 오던 여성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봉천동에 사는 김 모 씨는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전 남편의 구타를 참지 못해 이혼, 재혼한 남편에게서도 연일 구타를 당해야 했던 운명을 한탄하고 있다.

없었다. 돈을 벌어오는 족족 남편이 도박비와 유흥비로 탕진했기 때문이다. 10여차례 손님을 받아냈던 김 씨는 자신이 돈을 벌면 남편이 아무 직업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의 이런 의사는 그러나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앞에

아내 몸판 돈 유흥비 탕진

견디다 못한 아내가 남편 고발

김 씨는 “구타는 그럭저럭 이력이 생겨서 참을 만 했다”고 말했다. 그녀를 참을 수 없게 한 것은 “있는 살림 다 까먹고 나자 남편이 몸을 팔라”고 요구한 것에 있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차마 몸은 팔 수 없다고 버텼지만 남편의 살인적인 구타 앞에서는 대책이 서지 않았다. 삭월세로 세들어 살던 여관에서 남편이 자리를 피해 주면 그녀는 손님을 받아야 했다.

처음에 남편은 전세금을 마련할 때까지만 몸을 팔라고 했다. 그러나 돈은 모일 새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혼을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어디가나 내 팔자는 요모양 요꼴일 것”이라는 생각에 엄두도 낼 수가 없었다.

현재 김 씨의 남편은 검찰에 구속돼 있다. 남편의 버릇을 고쳐보겠다는 생각에 김 씨가 고발한 것이다.

“몸 팔라고 자리를 비켜주는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하는 내 팔자를 어떻게 고치면 되느냐”고 눈물짓는 김 씨는 모든 문제를 운명으로만 돌려버리는 한국여성의 현 주소를 말해 주고 있었다.